

---

비전을 말할 때 달나라 가는 사례를 많이 들던데요?

얼마 전인 2019년에 달착륙 50주년이 되었고, 미국을 오늘날의 강대국으로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 된 계기이니 요즘 다시 주목을 받더라.

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본주의 미국과 공산주의 소련이 곧 3차대전을 일으킬 것처럼 서로 으르렁댔거든. 당시 체제 경쟁의 초점은 누가 먼저 ICBM,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드느냐였어. 미사일이 대양을 건너 다른 대륙을 공격하려면 지구궤도에 로켓 올리는 기술을 확보해야 했는데, 소련이 계속 앞서가고 있었지. 한발 더 나아가 소련은 아예 미국 코앞인 쿠바에 미사일을 갖다놓으려 한 거야. 미국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한 건 당연하지.

케네디 대통령은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, 국민들의 불안이 더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.

‘용감했던 국민들이 왜 이토록 두려워하지? 아하, 우리 선조가 남겨준 억척스런 프런티어 스피릿(Frontier Spirit)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.’

왜 개척정신을 잃어버렸을까? 미국 땅에 더 이상 개척할 곳이 없으니까.

그런데 케네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... ‘저 광활한 우주가 새로운 개척지 아닐까?’ 싶은 거야. 그러고는 달부터 개척해보자는 발상에 이르렀지. 그 아이디어를 ‘뉴 프런티어(New Frontier) 정책’이라 명명하고는 취임 4개월 만에 달착륙 계획을 의회에서 발표했어.

“1960년대가 지나기 전에, 인간을 달에 보낸 후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킬 것입니다. 이는 장기적인 우주탐사에 중요한 전환